

전주 시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시, 2억8000여만원 투자 15일부터 1년간... 사망 2500만원 · 상해위로금 20~60만원

전주시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단체 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모든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탈 수 있도록 총 2억 8000여만원을 들여 전주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한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시민들은 전주시는 물론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 가입기간은 15일부터 1년간이며 보험 적용대상은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등으로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 보험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소멸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 2,500만원(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애 최대 2,500만원 △상해위로금 20~6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이다.

15세 미만자에 대한 사망보험금이 제외된 이유는 현행 상법 제732조에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형법 제9조에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4세 미만자에 대한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

사고 처리지원금 보장이 제외됐다.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시민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자전거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전거단체 보험에 가입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과 청구서식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를 참조하거나 전주시 자전거정책과(063-281-2448)로 문의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현대차 취업사기로 10억 채긴 일당 검거

현대차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10억원을 채긴 취업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완주경찰서는 16일 사기 혐의로 심모(43,여)씨를 구속하고, 현대차 직원 최모(3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심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취업준비생과 부모 등 22명을 속여 10억2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최씨와 부부 사이로 남편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근무하는 점을 이용해 "현대차 임원들을 잡았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들은 지인들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들이 먼저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으며 한 명당 4000만원에서 7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심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자신의 사채 빚 탕감에 썼으며 이중 2억여원은 회수됐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가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취직이 되지 않자 이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실제 현대차에 근무하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쉽게 속인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상민 기자

덕진구,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전주시 덕진구는 16일 김청일 지도홍보계장(전주시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을 초빙해 덕진구청 강당에서 직원 14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에 대해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고 공정선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김청일 강사는 선거주요일정, 직무관련 기부행위, SNS 위반행위,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규정 및 선거법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아름다운 선거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채규남 기자



봄소식 전하는 목련 지난 16일 어느 공원에 목련이 활짝 피 봄소식을 전하고 있다.

전주월드컵골프장 봄 새단장

전주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전주월드컵골프장이 봄을 맞이해 새롭게 고객쉼터를 조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새단장에 나섰다.

새롭게 조성된 고객 쉼터에는 골프장을 찾는 고객을 위해 TV와 휴대폰 충전기 등을 설치했고 신문, 잡지 등을 상시 구비해 고객서비스 질을 한층 높였다.

또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공기청정기를 비치해 쾌적한 고객쉼터를 조성했다. 특히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매일 아침 골프장 주변 환경 개선 및 고객들의 안전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에도 힘쓰고 있다.

전주시설공단 전성환 이사장은 "모든 시설장 해빙기 시설점검 및 각종 정비에 힘쓰고 있다"며 "시설 안전점검은 물론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듣고 실천하는 따뜻한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사업시행자 공개모집

시, 16일~5월 14일까지 건물임대부 우선 실시... 토지임대부도 공모 병행

전주시가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사업 시행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16일부터 오는 5월 14일까지 60일간 저소득층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주형 사회주택'을 공급·운영할 사업 시행자 모집 공모를 실시한다.

사회주택(Social housing)은 전주시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동 출자해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한 후 주거약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올해 총 7억원을 투입해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민간에서 토지 또는 건물을 기부하면

시가 6억원 이하의 공사비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장기간 임대하는 '건물임대부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동시에 기존처럼 토지(건물)를 매입하고 민간에서 신축 또는 리모델링해 주택을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사업' 운영 사업자 공모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건물임대부 사회주택과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것은 전주가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저렴하고 유니버설디자인 설계로 누구나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사회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이번 공모에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단체는 오는 5월 8일부터 14일까지 전주시 주거복지과(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6층)로 제안서를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5월말 최종 사업 시행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회주택 공급 및 운영 사업 시행자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를 통해 확인하거나 전화(063-281-5245~6)로 문의하면 된다. /채규남 기자

서서학동 송원아파트 옆 인도설치 추진

전주시 완산구는 서서학동 송원아파트 주변 보행자 및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인도설치 및 도로확장 공사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서학동 송원아파트 옆 도로는 차로폭이 4m로 차량의 양방향 동시통행이 어렵고 인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인근 주민은 협소한 차로를 이용해 보행 시 차량과의 안전사고에 노출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완산구는 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원을 들여 인도설치 및 도로확장을 추진한다. 2018년 3월 현재 시설설계 중으로 4월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5월부터 공사를 추진해 연내 사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송원아파트 옆 도로 70m 구간 도로폭 4미터 → 7.5미터 확장과 인도 설치로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게 하고 안전한 보행로를 만들 계획이다.

전주시 완산구청장은 "서서학동 송원아파트 옆 인도설치 및 도로가 확장되면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운전자에게 편의 제공 등 지역 주민생활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시, 주방 개방 문화정착 결의대회

전주시와 일반음식점 영업주들이 위생수준을 높여 식중독 발생을 예방, 위생·친절서비스를 강화해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문화를 만들어나기로 했다.

시는 16일 금암동 웨딩팰리스에서 덕진구 일반음식점 영업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심 먹거리 공급과 위생주방 확립을 위한 '위생적인 주방 개방 문화 정착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참석한 일반음식점 영업주들은 주방의 위생이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됨을 인식하고 열린 주방으로 조

리과정의 투명성 확보, 주방 환경을 청결히 유지, 남은 음식 재사용하지 않기, 위생복 착용 등 음식점 위생 안전관리를 철저히 실천하기로 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전주 한옥마을에 1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오고 있고 오는 10월에는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지역에서 제99회 전국체전 경기도 열린다"며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비해 안전하고 건강한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음식점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채규남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